



깡깡이
예술마을
근대수리조선 1번지, 대평동
KANGKANGEE Arts Village

萬 事 大 平

만사대평

2017년
3월호

깡깡이마을 사진 공모전



1991.12. 역사 속으로 사진집 대평공설시장



1984. 8. 1984년은 몇공훈장을 하던 시절



1989. 5. 꽃처럼 예쁜 조막점 할머니



1978. 5. 달님미용실은 어디로?



1992. 5. 힘차게 달려라!

“집에 있는 오래된 앨범을 다시 펼쳐보세요.
옛날 대평동 모습이 조금이라도 담겨있는 사진이라면 어떤 것인든
좋습니다. 옛날 사진을 가져다주시는 모든 분에게는 사업단에서
준비한 작은 기념품을 드립니다.”

* 공모전이 끝나면 사진은 다시 돌려드립니다

가져다주실 곳 : 부산시 영도구 대평로 27번길 8-8, 생활문화센터 201호

사진제공. 박대수, 조막점, 박송엽

2017년 대평동 마을회 정기총회 개최



지난 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평경로당에서 <2017년 대평동 마을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이집윤 현 대평동 노인회장님과 박대수 전 대평동 마을회장님, 이영완 현 대평동 마을회장님 등 마을 대표분들과 황보승희 부산시의회 의원님, 이경춘 영도구의회 의원님을 비롯해 총 50여 명의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해주셨습니다.

정기총회를 시작하기 전 깡깡이예술마을 사업단이 지난해 사업 성과와 2017년 사업 계획을 보고하였고, 주요 안건으로 2017년 대평동 마을회 예산안을 논의한 후 통과하였습니다. 끝으로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스무 분에게 소정의 금액을 전달하며 올해의 정기총회를 훈훈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글·이종렬 주민기자



남항터울림 지신밟기, 복(福) 들어갑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3일까지 남항동(대평동과 대교동을 아우르는 행정동명)에서 남항터울림 지신밟기 행사(이하 지신밟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남항동유관단체협의회 김용민 회장님과 남항동주민센터 문장용 동장님의 주도 하에 열린 지신밟기 행사는 2월 1일 오전 8시 30분에 하늘에 제를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3일간 풍물놀이팀이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며 지신(地神)에게 남항동 내 각 가정의 화목과 사업장의 번영을 빌었습니다.

지신밟기 행사는 본래 남항동에서 행해져오던 세시풍속이었으나 15년간 중단되었다가 지난 2016년에 부활한 것입니다. 남항동 유관단체협의회 김용민 회장님은 “남항동은 본래 어촌마을이었기 때문에 지신이나 용왕신에게 복을 비는 신앙이 강했던 곳이다. 작년부터 다시 지신밟기 행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마을의 오랜 전통을 계승하고 동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2월 3일에는 지신밟기 팀이 대평동을 찾았습니다. 대평동 16통에 위치한 대동대교맨션 1동 상가 입구에서 시작된 팽가리, 징, 장구, 북소리가 온 마을에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 대평동 로타리에 새롭게 자리한 닷상징물 앞에서 힘찬 터울림을 하고 18통 관내에 새롭게 조성한 쌈지공원에서도 멋진 풍물 공연이 한바탕 진행되었습니다. 구 대평동 동사무소 건물은 깡깡이예술마을



▲ 2월 3일 대평동을 찾은 지신밟기 풍물놀이팀

사업 지원금으로 멋지게 수리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의 1층에 위치한 대평경로당에는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풍물놀이팀의 장단에 맞춰 새해소망과 무병장수, 소원성취, 국태민안을 빌었습니다.

**“주민주인 둔여소 여후여후 지신아
잡귀잡신은 물러가고 만복은 이 건물로”**

올해 지신밟기 행사로 거둬드린 협찬금은 불우이웃돕기, 경로잔치 등 지역 발전 및 소외계층 지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일부는 행복영도 장학금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데 큰 노력을 아끼지 않은 남항동주민센터 직원분들과 남항동 유관단체협의회 분들, 신명을 다해준 남항동 풍물놀이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글·김동진 편집위원 / 사진·이춘옥 주민기자

섬에서 나와 또 다른 섬으로, 영도 대평동 제주골목 이야기 1

한성세탁소를 끼고 놓인 골목을 따라 미로와 같은 좁은 길을 지나면, 대평동을 제2의 고향으로 뿌리를 내린 분들이 계십니다. 산 넘고 바다 건너 271km. 모향 제주를 떠나 골목 하나를 사이로 고향 사람들이 이웃을 이룬 ‘제주골목’, 오늘은 그 곳에서 김진두(83세), 홍정자(75세) 두 분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떠나온 고향과 골목에 얹힌 추억까지. 이북마을에 이어 이주민들이 한데 모여 이름 붙여진 대평동 제주골목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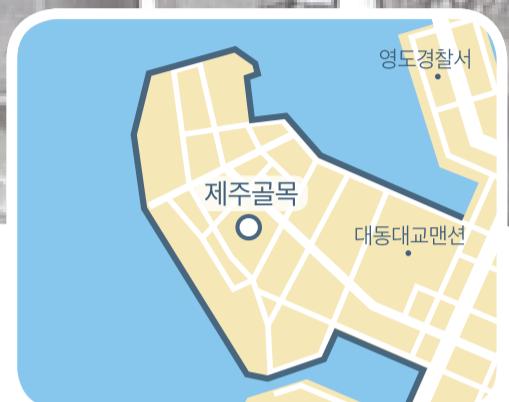


▲ 홍정자 어르신



▲ 김진두 어르신

‘혼저옵서예(어서오세요)’ 부산에서 건네는 제주도 인사



30년간 배를 타며 선장으로 활동하던 김진두 어르신의 출생지는 제주도에서도 섬, 우도입니다. 1975년 당시 대평동에 이모님이 계셔 이사를 온 후 (몇 년 정도 대평동에서 지내다) 남항동, 청학동에 나가 지낸 후 2009년 다시 제주골목으로 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75년 당시에도 대평동 제주골목에는 많은 고향 분들이 살고 있었고, 제주도에서 알던 분들도 더러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주도를 떠나온 분들 중 대개 남자들은 선원이 되어 배를 타고, 여자들은 해녀로 물질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다고 합니다.

“(제주도 사람이) 억수로 많이 살았다. 옛날엔 이 동네 시끄러워 몬살았다고 했어”(김진두 어르신)

“여기 다 제주도분들 살았어요. 그러니까 해녀가 육십오 명이나 났지”(홍정자 어르신)

제주골목에 살고 있는 홍정자 어르신은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물질을 하는 해녀입니다. 고향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로 열한 살에 어머니를 따라 대평동에 온 후 같은 곳에서만 64년을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스무날을 나가 전복, 문어, 성게 등을 잡습니다. 많이 할 때는 50kg까지 잡아 자갈치시장에 넘기기도 합니다.

부산 사람 빼고 대평동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제주도 사람이라 열 몇 집이 더 넘었다는 제주골목. 두 분 말씀에 따르면 제주골목은 말할 것도 없고, 대평동에서 함께 물질하던 사람 모두가 제주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대평동을 비롯해 영도에 제주도 사람이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 부산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민을 위한 향우회이자 친목회인 ‘제주도민회’가 있을 정도입니다. 제주도민회에서는 일 년에 한 번 행사를 개최해 고향사람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만들고 나눠 먹으며 그리운 고향을 추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평동 제주골목에는 제주도가 고향인 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시고 두세 분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골목의 이름만이 그 흔적을 떠올리게 해줄 뿐입니다.

다음호에서 계속

글 및 사진·김수영 객원기자(한국해양대학교·4)

예술가를 만나다

아트벤치 프로젝트 1부.

대동대교맨션 후문 김성철·김상일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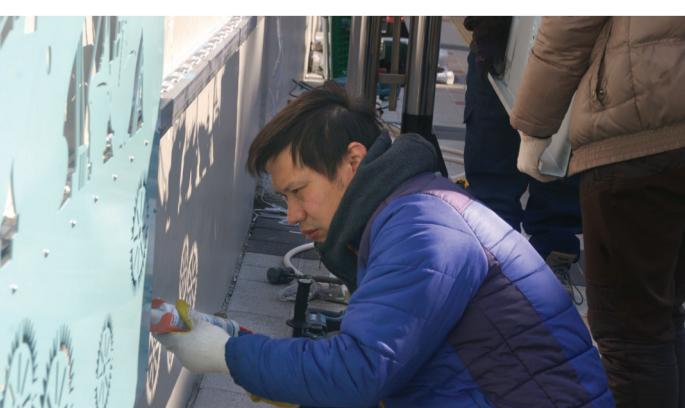
▲ 김성철 작가님



▲ 김성철 작가의 아트벤치 '관계-어울림'



▲ 김성철 작가의 제작 과정



▲ 항구모습의 배경작품을 설치 중인 김성철 작가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떤 작품들을 해 오셨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성철 저는 페인팅과 설치작업을 주로 합니다. 대체로 ‘가려움’이란 주제를 가지는데요, 피부가 아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시원하게 긁고 싶은 애매한 상황들에 대한 ‘가려움’을 주제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트벤치 작품들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김성철 저는 앞에서도 말했듯, 기어를 소재로 삼았습니다. ‘기어’라는 것은 하나로만 움직이는 게 아닌, 여러 개가 맞물려야 돌아가는 재료입니다. 이 재료의 특징이 대평동의 산업적 특성과도 같다고 생각했죠. 여러 사람들의 협업 덕분에 선박 수리업이 가능한 것 일 테니까요.

이번 작품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몇 차례 마을을 둘러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깡깡이마을에 대한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김성철 저는 영도를 관광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대평동이 사실 영도다리만 건너면 있는 가까운 곳인데 주의 깊게 안 봤었기 때문에 저 또한 많이 흥미로웠습니다. 자갈치 쪽에서 봤을 땐 그저 배 수리를 하는 곳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직접 본 것은 처음이라 모든 게 신기했고, 도심 안에도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하는 감탄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둘러보던 중, 기어와 닷 그리고 프로펠러가 저에게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었죠. 그래서 이곳에서 나온 재료들을 벤치를 만들 때 직접 이용하려 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로 있는 그대로 사용은 못했지만요.

벤치 모양은 각각 다르지만, 항구의 모습을 표현한 배경은 두 작품 모두 같은데요. 두 분이 함께 만드셨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작업하셨나요?

김성철 김상일 작가의 도움이 컸습니다. 상호 보완되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항구모양 배경은 이곳에서 직접 찍은 사진을 단순하게 그려, 그림을 뽑아서 레이저로 철판을 자른 것입니다. 대평동의 풍경 그 자체를 옮겨 온 것이지요. 뾰족한 모서리 부분들에 하나하나 곡을 줘야 해서 그 과정이 꽤 힘들었기도 합니다.

앞으로 아트벤치를 사용하게 될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김성철 주민 분들이 잘 사용하신다면 그것이 곧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정말 잘 이용해주시고, 또 대평동의 예술 작품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2016년의 끝자락, 강주위를 뚫고 대동대교맨션 후문 앞에 아트벤치 두 점이 설치되었습니다. 어둑어둑해질 무렵이면 벤치 뒤의 은은한 불빛이 따사로운 풍경을 연출합니다. 최근 일몰이 늦어져 조명 타이머를 다시 맞추러 두 작가님이 마을에 들려주셨습니다.

인터뷰 및 글·깡깡이예술마을 김선영 운영팀장

김상일 주로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제 작품의 주제가 됩니다. 이와 같은 주제를 단순한 모양으로 바꾸어 한 눈에 볼 수 있게 입체적인 작품으로 표현합니다. 주로 철을 재료로 사용하여 철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생동감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 우선 ‘깡깡이’라는 것은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가공하는 행동’, ‘작업하는 행동’과 같은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도 ‘두드리는 소리’를 이미지로 나타내기 위해 선으로 그린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 김상일 작가님

김상일 저는 밀양이 고향이고, 학교를 부산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작업실도 밀양에 있어요. 평소 영도가 부산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올 일이 많이 없어서 이곳 대평동을 잘 몰랐습니다. 영도다리만 익숙하게 아는 정도였죠. 그런데 직접 대평동에 와서 보니, 선박 관련 수리 공업이 발달해 있어 몹시 새로웠습니다. 선박 공장들과 프로펠러의 날개 등 기계 부속품들이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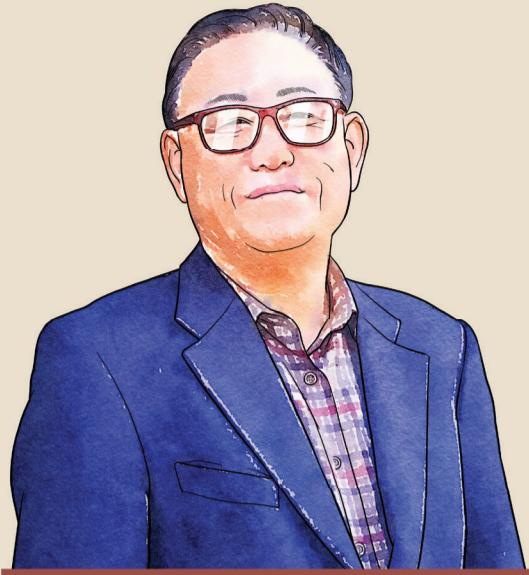
▲ 김상일 작가의 아트벤치 ‘두드림’

김상일 우선, 둘이서 같이 제작하며 힘들었다기보다 저는 김성철 작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준비과정에서는 김성철 작가가 많이 움직이셨고, 제작과정에서는 제가 철을 다루다 보니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처럼 혼자서 해결 할 수 없었던 부분을 둘이서 하니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었고, 서로 의견도 많이 나눌 수 있어서 더욱 돈독해지고 좋았습니다.



▲ 아트벤치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김상일 작가

김상일 작가가 작품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안전성입니다. 공공미술작품이다보니 안전하게 만든다고 했는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장난을 친다거나 하는 위험한 행동은 조금 조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벤치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마을 분들 모두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잘 사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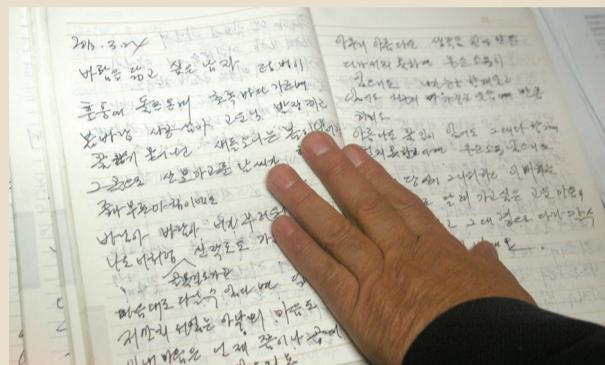


깡깡이 마을의 음유시인

김광태 사장 (66세, 광신밸로우즈 사장)

※ 본 기사는 인터뷰를 재구성한 것으로 인터뷰 당시의 어감을 그대로 살려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시를 씁니다. 올해 내 나이가 66세인데 시를 쓰기 시작한 건 10년 정도 됐습니다. 창작은 한다는 것 자체가 생활에 활력 소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 시를 쓰려다보니 자연히 모든 사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걸어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보고 지하철을 타면 다른 사람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메모하고 그것을 시로 옮깁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계절이 변하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꽃이 피는 모든 것이 다 시가 됩니다. 그래서 제 시는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어요.



“매일 하루도 빼먹지 않고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낡은 노트가 그 흔적이에요.”

원래 고향은 전라남도 고흥인데 16살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려고 저 혼자 부산으로 왔습니다. 25살쯤 결혼하면서는 대평동에 정착했어요. 고등학교에서 전기 공부를 해서 처음에는 전기 다루는 일을 하다가 지금은 자바라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평동이 한창 번성 기일 때는 참 활기찼습니다. 대평동에서 깡깡 소리, 그라인더 소리가 끊임 날이 없었습니다. 망치하나 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린 겁니다. 그래서 깡깡이 소리에는 삶의 애환이 담겨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며 ‘빨강 노래 소리’라는 시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빨강 노래 소리

- 김광태

따그닥 따그닥
말밥굽 소리인가

따그닥 따그닥
느즈막한 저녁

옆집 순이네
다듬질하는
소리인가

뻘건 철판이
북이 되고
장구가 되어

두들기는 두들기는
깡깡이 아낙 들의

손놀림이 빛어낸
소리가 소리가

살포시 밀려와 하얀 물거품
소리내는 파도와
어우러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로
멋나는 음악을

연주하는 아낙들의
손놀림에는

희망도 두드리고
사랑도 두드리고
설움도 두드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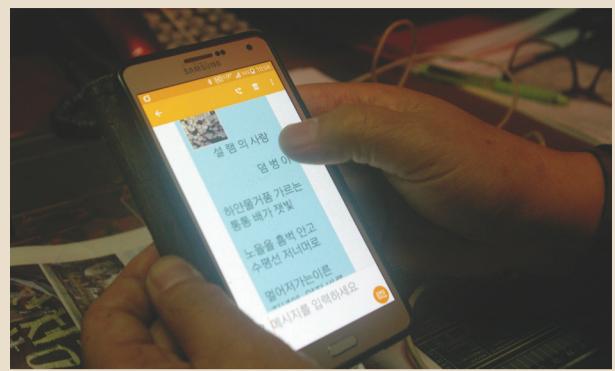
아낙들의 애환을
그려내는 소리가
메아리 되어 되어
바닷가를 맴도네

저는 시에서 ‘색’을 많이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마음’인 겁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면 자기 가슴에 있던 원래의 마음 색이 변하게 됩니다. 모두가 자신의 색을 되찾아야 하죠. 그런데 시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삶의 욕구를 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가 사람들 마음의 원래 색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시를 쓰는 나에게도, 제 시를 읽는 다른 사람들에게도요.

느즈막한 저녁 지하철에서
아낙네들의 날렵한 옷맵시에
초록이 연하게 지나간 스카프에서
봄을 진하게 느꼈던 밤이 지나고

한겨울 내내 봄을 기다리던 초록들이
삐죽삐죽 거리며 따스한 봄 공기와
첫 포옹하는 소리가
창문 새로 들려오는 아침이 밝아오네

[2014. 2. 22 습작노트 중]



“제 시를 매일 봄이 마치 자기 삶을
제가 대신 표현해주는 것 같다고 말해주실 때
참 행복합니다.”

대평동 용어 사전 [닻줄과] 양묘기



▲ 닻줄



▲ 양묘기

감수·문호성 (선박설계기술사)

지난호 대평동 용어사전에서는 ‘닻’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형 선박일 경우 닻 무게만 무려 10톤이 넘기도 하는데요. 그런 닻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닻줄과 양묘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깡깡이마을을 걷다보면 쇠사슬 무더기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쇠사슬 고리(link) 하나 하나가 얇고 작은 것부터 굵고 큰 것까지 다양합니다. 배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분에게 “저 쇠사슬은 뭔가요?” 하고 물어보면 대번 “닻줄이야”라는 답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닻줄은 배와 닻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형 닻일 경우 섬유 재질의 로프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쇠사슬줄(chain cable)을 닻에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큰 닻일 경우 쇠사슬 고리(link) 하나의 크기가 건장한 성인 남성의 몸통만하고, 전체 길이도 몇 백 미터 혹은 그 이상인 것도 있습니다. 길고, 무겁고, 튼튼한 쇠사슬이 닻과 배를 잘 연결해줘 물살에 떠밀리지 않도록 하는 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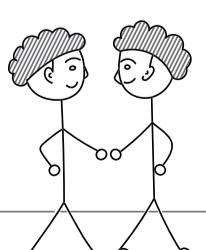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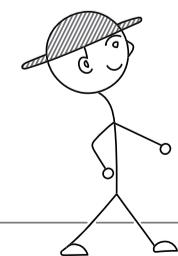
선박 건조 기술이 발달하면서 배의 크기도 점점 커졌고, 닻과 함께 닻줄까지 점점 크고 무거워졌습니다. 닻을 더 쉽게 끌어올리기 위해 만든 장치를 ‘양묘기(揚錨機) 또는 윈드라스(windlass)’라고 합니다.

무척 낯선 이름이지만 깡깡이마을 거리에서 종종 보이는 것입니다. 양묘기는 올리거나 듣다는 뜻을 가진 한자 양(楊)자와 닻을 의미하는 한자인 묘(錨)자가 함께 쓰여, 말 그대로 ‘닻을 올리는 기계’를 의미합니다. 양묘기는 주로 뱃머리 갑판에 설치하며 닻줄을 감아올리는 체인 풀리와 브레이크로 구성돼 있습니다. 체인풀리가 회전하는 힘은 전기나 유압(油壓), 압축공기를 통해 얻습니다. 일반적으로 강력한 힘과 사용상의 편리 때문에 유압식 양묘기를 많이 장착한다고 합니다.

언젠가 깡깡이마을을 방문했을 때 누군가 “저게 뭐야?”라고 물어본다면 멋지게 대답해주세요. “저건 말야 닻을 올리는 양묘기라는 거야” 라구요.

100세까지 깡깡하게 살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건강상식



작은 실천만으로도 저절로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햇빛 샤워’입니다. 햇빛을 써면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세로토닌은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를 강하게 만들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돌핀을 배출하는 데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우울증은 세로토닌 수치가 떨어지는 현상인데 햇빛은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세로토닌은 충동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부족해지면 공격적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우울증, 불면증, 공항장애 등 건강 이상 증세가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하루에 햇빛을 5분 이상 흡수하고, 하루 20분 정도 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로토닌을 많이 생성시켜 모두 건강한 3월 되세요!

★ 모자는 쓰고 걸어도 선글라스는 착용하지 말아주세요. 눈을 통해 햇빛이 들어올 때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주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생산이 촉진된답니다.

글 및 그림·이춘옥 주민기자

깡깡이예술마을 사업단 소식

깡깡이
예술마을
사업이란?

깡깡이예술마을 사업은 2015년 부산시 예술상상마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영도 대평동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문화예술형 도시재생 프로젝트입니다.

1. 깡깡이예술마을 상징조형물 조성 완료



마을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대평동 2번 마을버스 종점 로터리 맞은편 화단에 깡깡이예술마을 상징조형물을 세웠습니다. 대형 낫을 활용해 수리조선 마을인 대평동을 표현했고, 깡깡이예술마을 마을 브랜드를 활용해 입체적인 간판을 만들어 하단에 설치하였습니다. 봄이 되면 마을 분들과 함께 조경 수를 심어 주변 또한 더욱 멋지게 가꿀 예정입니다.

상징조형물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녹이 더해져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조각 작품입니다. 마을 상징조형물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상징물 앞에 장시간 주차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점등시간 :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2. 주한영국문화원 및 한-영교류의 해 관계자 깡깡이마을 방문



지난 2월 18일, 주한영국문화원 및 한영교류의 해 관계자 분들이 깡깡이마을을 방문했습니다. 2017~18년은 <한영교류의 해(Korea/UK 2017-18)>로 한국과 영국 기획가 및 예술가들이 협력해 다양한 문화예술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주 등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며 부산에서는 영도 깡깡이예술마을이 교류 중에 있습니다. 깡깡이마을에서 영감을 얻은 영국 작가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3. 문화사랑방 시즌 2 <마을동아리> 시작

깡깡이마을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예술을 방문객에게 안내할 수 있는 마을해설사 양성프로그램과 화분을 만들고 식물을 심어 마을을 푸른 공간으로 만드는 마을가꾸기 동아리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3월 말 경에는 2차 마을동아리 모집도 있을 예정이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INFO

기자모집

『만사대평』의 주민 기자가 되고 싶은 분은
마을신문 사무국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평소 글쓰기,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등에
관심 있는 대평동 주민분께서는 마을신문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대평동을 다녀가신 분의 방문 후기를 받습니다.
긴 글 짧은글 상관없이 후기를 적어
보내주세요

광고

『만사대평』에서는 생활지면광고를 게재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혼축하, 돌기념, 고희기념, 업체광고 등 함께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는 소식들을 마을신문을 통해 전해보세요.

- 광고 게재료는 1만원입니다.
- 『만사대평』은 부산시내 주요 관공서, 영도구 주요 기관 등에 배포됩니다.
- 광고 게재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거나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깡깡이예술마을 사무국

051-418-1863

부산시 영도구 대평로
27번길 8-8,
생활문화센터 201호

ydart2016@hanmail.net